

11월 07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0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글로벌 R 공포’ 뉴욕 이틀째 폭락 [다우: 8,695.79pt (-4.85%)]	뉴욕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경기후퇴(recession) 공포감을 불러내는 악재가 쏟아지면서 전방위 투매를 촉발시켜 다우와 S&P500 지수의 이틀간 하락률은 지난 1987년 이후 최고치에 수준으로 기록.
유럽 증시 폭락.. '금리 인하 불구 R공포 증폭'	6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주식시장이 일제히 폭락. 이날 영국 FTSE100 지수는 4,272.41로 전일대비 5.7% 폭락했고 프랑스 CAC40 지수는 6.4% 추락한 3,387.25로 거래를 마감. 독일 DAX30 지수는 4,813.57로 6.8% 후퇴.
ECB 등 유럽중앙은행 일제히 금리인하	ECB 등 유럽 주요 중앙은행들이 당면한 경기후퇴(recession)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달아 대폭적인 금리인하에 나섰음. 특히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무려 1.5%p의 파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 이같은 현상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지역의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IMF, 내년 美·유로존 日 역성장.. '글로벌 인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 경제권인 미국, 유로존, 일본의 내년 성장률을 일제히 마이너스대로 하향 조정, 글로벌 경기후퇴(recession) 진입가능성을 인정. 이날 IMF는 반기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종전의 연 3.9%에서 3.7%로 낮춰잡는 한편 내년의 경우 3%에서 2.2%로 크게 하향 조정.
美 1주이상 실업수당 청구건수 25년래 최대	미국의 1주 이상 실업수당청구건수(지난달 25일 마감기준)가 전주대비 12만2,000명 늘어나 25년 최대치인 384만명을 기록. 이는 전 산업부문에 걸친 감원 한파로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3Q 노동생산성, 노동비용 하회.. '감원 가능성 ↑'	미국의 3분기 노동생산성이 전분기의 3.6%에서 1.1%로 대폭 낮아졌음. 특히 노동비용 증가율인 3.6%에 크게 못미쳐 기업들의 감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가 또 급락 [WTI: \$60.77(-\$4.53)]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원유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유가는 거듭된 급락세를 보임.
유로 급락.. '트리셰 추가 금리인하 시사'	6일(현지시간) 미국 외환시장에서 유로 가치가 달러와 엔에 대해 급락.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이날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50bp 내린 뒤 추가 금리인하를 강력 시사한게 영향.

제목	주요 내용
기약없는 산은 민영화	금융위기로 정책금융 역할이 부각되면서 입법부에서 지금 산은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 민영화라는 큰 원칙과 방향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함께 고조.
유동성 증가세	월 M2 + 14.5%(8월 14.7%), 10월 14%내외로 추정 9월 과의 유동성 12.1%(8월13.3%) 한국은행 유동성 감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